

모든걸 근본에다 되놓고 활발하게 인연 따라 활용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사께서 지은 『선가귀감(禪家龜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마치 바람 없는 데 물결을 일으킴과 같다. 대자대비로 어리석은 중생 건지심이지만, 한 물건으로 본다면 사람마다 본래면목(本來面目)이 절로 이루어졌거늘 어찌 남이 연지 찍고 분 발라주기를 기다리리요. 고로 이 세상에 나오심은 잔잔한 물결에 파도 일으킴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이 오신 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나큰 복이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것인지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령, '큰스님 오심이 바람 없는 데 물결 일으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어떻게 사람이 웃기만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웃지 않고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한다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이 지금 그 말이죠. 오히려 그 파도를 일으킴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은 일으킴과 가라앉힘과 동시에 작용이 돼야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파도로 비유를 한다면 파도가 일지 않으면 고기 떼가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태양은 물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항시 돌아야만이 고기 떼가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을 한번 비유해본다면, 모든 거를 그래서 정(定)에 들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발, 사람이 이걸 들었다가 놓을 수 (컵 뚜껑을 들었다가 놓아 보이시며) 없다면 그, 사람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될 수 없죠. 사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들기만 하고 놓지 못하면은 병신이요, 놓고 들 줄을 모른다면 병신이요. 어떻습니까?

질문자2(남): 맞습니다.

큰스님: 네. 주먹을 쥐었다 펼 줄 모른다면 병신이요, 또 펴놓고선 주먹을 쥘 줄 모른다면 병신이요. 그러니까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작용을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을 일축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잘 들으셔야죠. 응?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선근을 심어주는 일이죠.

질문자2(남): 두 번째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세 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것으로 세 번 죽기가 가능합니까?

큰스님: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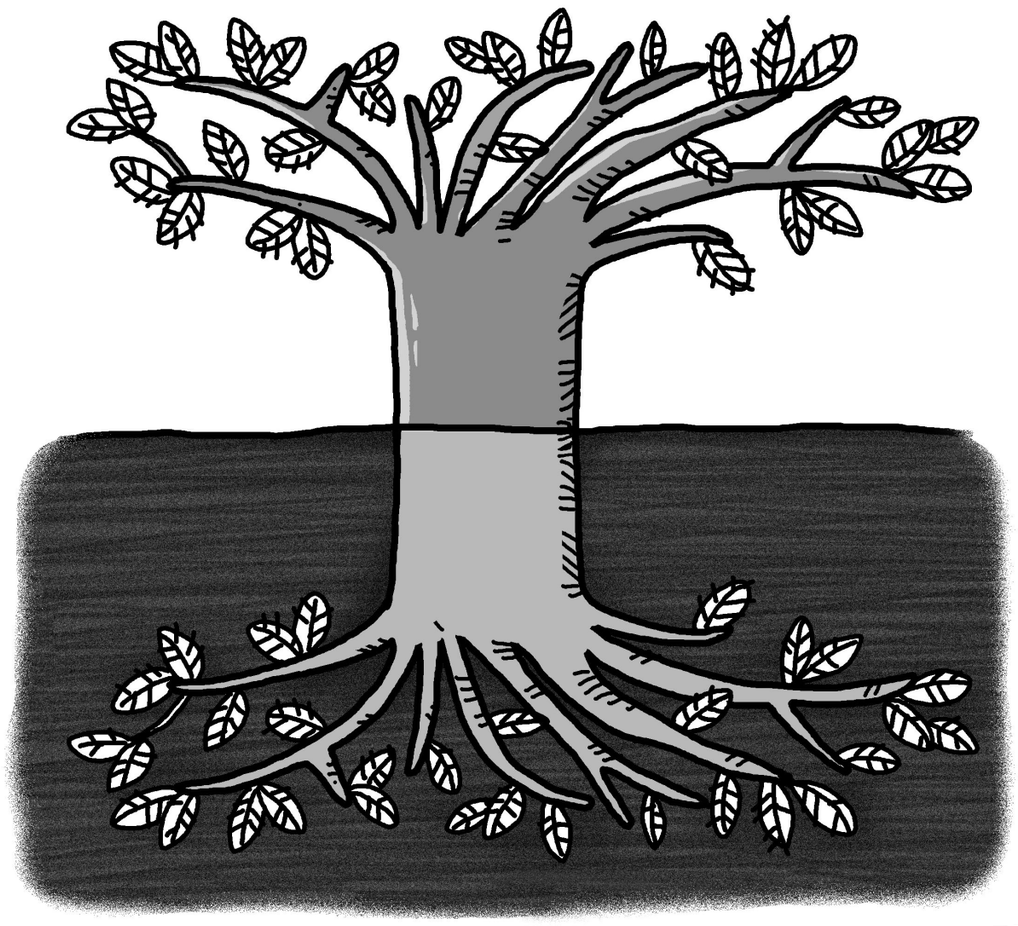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아니면 큰스님께서 해오신 바와 같이 목숨을 떼어놓고 들어가야 합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주인공을 일심(一心)으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막론해놓고 말입니다.

아까 동자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다리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즉 무심(無心)과 유심(有心)이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와 동시에 돌아가죠? 어디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눈과 귀가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어디? 얼굴이?

그러니까 이것을 악과 선도 거기 놔라. 악한 거는 '선하게 이끌어줄 수 있지 않으냐.' 하고 놓고,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든 거를 한군데다가 놓는 것이 자기가 공(空)해서 본래 없는 것인데, 따로 내가 없다 하는 소립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따로 내가 없는데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따로 독불장군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가 따로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따로 없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공생(共生)이며 또는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共食化) 하고 그냥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끔 하려면 겉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한마음 속에서 모든 게 들고 나는 그 무쌍한 만법이 그대로 더불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말입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 속으로 확철히 알려면은 거기다가 또 놓고 돌아가야 하니까 또 두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세 번째도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인연에 따라서 이 손수건을 쥐었으면 손수건은 들고만 있는 게 손수건이 아니라 땀을 씻는 겁니다. 응? 어디를 씻든지. 그러면 나와 수건과 인연이 마주쳤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발전의 작용입니다, 발전의 작용. 그렇 때문에 나툰다고 하는 겁니다. 나툰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땀이 나면 손수건을 들고, 말소리를 내려면 이 마이크를 들고. 야, 모든 일체 만물이 만 가지가 다 나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또 놓고 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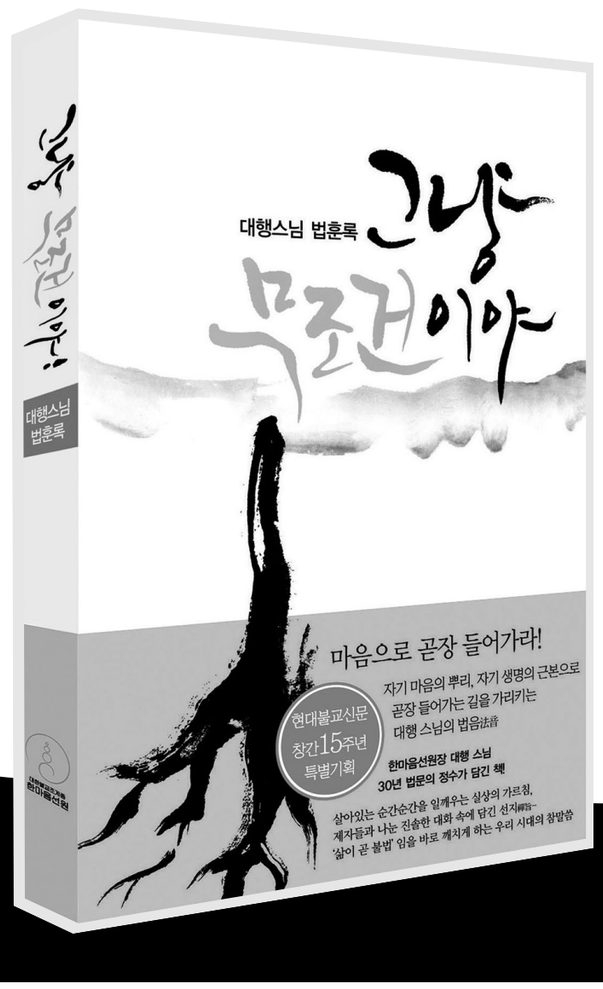
그래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구경경지(究竟境地)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거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空)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동자가 얘기를 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부처님 발과 그 어린 동자의 발과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